

미래 성장산업 발굴·유망 강소기업 키우기 온 힘

전남 TechnoPark



드론산업 10대 미래 산업 선정
산학연-22개 시·군 네트워크 구축
전남형 강소기업 마케팅 전폭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실직자 지원 강화

전남의 10대 미래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지역 대표 강소기업을 키우고 있는 전남테크노파크가 ‘현장 밀착’에 나서면서 관련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지역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취임 1년을 맞은 김병일 원장부터 기업을 찾아 수요(needs)를 파악하고, 관련 시·군을 직접 찾아 민원해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전남의 미래성장을 고민하면서 산업 발전의 주축이 될 지역기업을 찾고, 적절한 지원을 하는 업무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올 초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성장동력산업 기획위원회를 가동한 것도 김 원장 취임 직후의 일이다. 위원회는 에너지신산업, 무인항공기(드론), ICT(정보통신기술), 우주항공, 환경 등을 전남 산업 10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보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R&D(연구개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송기기술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부품 기획위원회 등 10개 산업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직접 찾아 기획보고서 검토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도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존재하는 다양한 ‘혁신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거점기능도 맡고 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대학 특성화사업단이나 산학협력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물론 한국전력 등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22개 시·군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 7월 수립한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계획이 대표적인 성과다. 이를 통해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력산업분과(전력산업기능군), 문화예술분과(문화예술기능군), 농수산지원분과(농수산지원기능군) 등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기관 간 소통 및 정보 공유 ▲지원사업 간 중복성 방지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전남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관련 지역 및 기관 의견 청취 ▲지역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지원방법 및 연계방안 모색 등이 주요 역할이다.



지역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 향상을 돕는 것은 물론 전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도 테크노파크의 몫이다.

오는 2018년까지 104억원을 들여 ‘전남형 강소기업’을 발굴해 해당 기업에 연구개발(R&D) 성과 사업화, 맞춤형 마케팅, 기업 성장전략 수립, 중장기 R&D 과제 기획, 경영 및 품질혁신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난 6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주)삼우에코, 한성푸드영농조합법인, (주)프릭사, 한영타이어(주), (주)케이푸드농업회사법인 등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글로벌 전략기술 개발 등을 돕고 있다. 이밖에 산하 신소재센터 등을 통해 ▲금속소재 주력산업 기업지원사업(사업비 21억6000만원) ▲세라믹산업 유망기업 중점 육성(60억원) ▲경제협력권 조선헤양플랜트 기술사업화 지원 ▲시·군 연계협력 기업 지원 ▲전남 뿌리산업 집중지원을 통한 연관기업 육성 ▲중소형 조선해양 유망기업 육성 등도 추진중이다.

최근 나주시와 공동으로 미래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 2개사를 신규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과 지역 바이오기업인 HC바이오텍의 간 기술 중개를 통해 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에 기여하는 등 테크노파크가 그 역할을 전방위로 확장하고 있다.

전남 산업의 미래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과학기술의 역량 업그레이드에도 팔을 걷었다. 지역 R&D(연구개발), 연구장비, 지식재산 등의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지역과학기술 지원체

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연구조직 집중육성과 R&D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 R&D생태계 구축에 5억4000만원을 예산을 배정한 테크노파크는 올 하반기에 지난 2015년 전남 R&D사업을 조사 분석하고 R&D 전략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김 원장 취임 이후 ‘전남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촉진사업’에 나서 연구기관과 지역 중소기업들이 지역 내 고가의 장비를 손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에 가장 ‘전남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촉진 사업’ 지원 제안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민간 6기 전남도의 핵심사업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 ‘고용 지원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고용 위기 산업의 실직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으로써 지역민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지역 내 특화 분야별 수요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구인업체와 구직자에게 ‘맞춤형’ 지원 정책도 시행중이다.

지난 7월부터 30개월간 자체 예산 100억원 등 225억원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고용위기 산업 내 기업 재직자 및 실직(예정)자, 청년 취업 및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남형 고용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지역 내 세라믹기업 수요인력 배양 및 공급, 지역 수요 맞춤형 석·박사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도 벌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투자유치상·산업진흥 평가 4년연속 A 성과 하반기 드론 규제프리존 설정 역점 추진”

김병일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지난 2015년 8월 취임한 김병일 제5대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현장파’로 유명하다. 본인이 직접 산하 센터, 기업, 기관, 대학 등 현장을 찾다니며 전남테크노파크 사업에 참여시키거나 신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취임해서 새로 구입한 전용차의 운행거리가 10개월만에 4만3000km를 넘어설 정도다. 영광 풍력센터, 목포 세라믹센터, 고흥 고분자센터, 순천 신소재센터, 보성 수송기기부품센터 등을 찾아 센터에 입주한 기업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거의 일상이 됐다.

김 원장이 말하는 전남 산업과 연구개발의 현주소, 미래성장동력 산업 등을 들었다.

▲1년 동안 낸 성과가 굉장하다.

쑥스럽지만 돌아보면 꽤 좋은 결과인데 기분은 좋다. 기업대표들이나 기관, 지자체 직원 등을 만나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다보니 성과가 나는 것 같다. 전직원들이 전사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노력하니 지난해에는 전남도 출연기관으로는 유일하게 투자유치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6년 산업부가 시행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평가에서 4년 연속 A 등급을 받았다.

▲전남 미래성장동력을 에너지 신산업과 드론산업으로 설정했다.

전남 미래먹거리 산업의 발굴은 신산업을 통한 조선업 등 대체수요의 창출과 성장가능한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에너지신산업과 무인항공기 드론산업이다. 에너지신산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에너지신산업 허브’ 육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있는 나주권에서는 기술·혁신, 영암권에서는 제조·산업, 섬 및 해상에서는 실증·보급으로 이어지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 안에서 수요·공급기업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드론산업의 경우 비행센터와 소재센터 등 무인기 관련 인프라가 전남지역에 이미 구축 집적돼 있다. 정부의 지역전략산업으로 드론산업이 선정

되면서 무인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글로벌 선도기지화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전남도의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지역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가능성과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적극 발굴해 육성하면서 매출증대와 제조업 종사자 일자리를 늘렸다. 지난해에는 신규로 720명이 테크노파크 지원으로 일자리를 얻었고, 취업과 연계된 전문인력 1270명이 양성됐다. 전남도내 세라믹기업이 필요하는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직접 취업희망자를 직접 모집해 이력과 현장실습을 통해 기업체 채용을 앞선하기도 했다.

▲테크노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기업에게 정보를 준다.

전남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산업 분야는 금속소재·가공, 세라믹, 석유화학기반 고분자, 레이저, 신재생에너지, IT/SW, 풍력 인증 등이다. 해당 산업과 관련된 과제별 지원사업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평가에 따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주요 사업 지원분야와 신청절차, 일정 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하반기 중점적인 사업은.

올해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동안 내년도 사업을 기획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전남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해오던 일들을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잠재돼 있는 조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정책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기업 지원을 해야하고, 전남테크노파크 유류부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기획사업도 생각중이다. 전남도 신전략 산업인 에너지 신산업과 드론 산업의 추진을 위해 규제 프리존 설정에 따른 사업도 조만간 시작해야한다.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 지원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광주 남구 진월,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의 중심지

상황리 분양중

시행 성희개발(주) 시공 한아종합건설(주) 설계·감리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중

스케일이 다른 가치는 투자자의 특권이 됩니다!

남구 빚고울CC, 노인건강타운과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우월한 입지

삼면이 확보된 최고의 조망권 및 노출광고가 확실한 상가

투자가치

고소득 직군의 인적 유입 및 소비증대로 수익증가

미래가치

어느 누구도, 앞으로 제시할 수 없는 위치대비 합리적 분양가

고객가치

효천H 천년나무APT LH행복주택	광주대학교	
효천 제일풍경채APT	빚고울CC 노인건강타운 빚고울전남대병원	
봉선동 →		진월지구 ↓ 화순 도곡

문의 062) 676-4006

010-5681-4015

* 본 이미지는 소위(지리) 이미지를 하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